

고진영,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정상

라이벌 박성현 · 전인지 따돌리고 우승...투어 직행티켓 따내

한국 선수 시즌 14승 달성...최종일 3만명 등 역대 최다관중

고진영(22·하이트진로)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우승하며 투어 직행티켓을 손에 넣었다.

고진영은 1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키야172 골프클럽 오션코스(파72·631야드)에서 펼쳐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2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17언더파 271타)과 3위 전인지(23·16언더파 272타)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LPGA 비회원 자격으로 우승을 거머쥔 고진영은 LPGA 투어 직행의 꿈을 이뤘다.

안시현(2003년), 이지영(2006년), 홍진주(2006년), 백규정(2014년)에 이어 5번째로 LPGA투어 직행 티켓을 따냈다.

고진영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지난 2년 간 외국 선수들에게 내줬던 대회 우승 타이틀을 되찾아 왔다.

지난 8월28일 박성현의 캐나다 여자오픈 우승 이후 5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시즌 14승째를 달성했다. 2015년 단연 시즌 최다승인 15승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2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일 경기에 돌입한 고진영은 박성현, 전인지(23)와 함께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15일 인천 영종도 스키야172 골프클럽에서 펼쳐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고진영(왼쪽), 박성현(가운데), 전인지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다.

시작했다.

평범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고진영은 초반 고비를 잘 극복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1번 홀(파4) 파로 시작한 고진영은 2번 홀(파4)에서 보기를 하며 버디에 성공한 박성현에 공동 선두를 내줬다.

3번 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5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하며 뒤늦게 시동을 걸었다.

박성현이 4, 5번 홀에서 연속 버

디를 하며 달아났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7번 홀(파5)에서 안정된 아이언 샷으로 두 번째 버디에 성공한 고진영은 8번 홀(파3)에서도 티샷을 홀컵 옆에 붙이며 1타를 또 즐겼다.

기세를 올린 고진영은 앞서 사흘 연속 버디를 했던 9번 홀(파4)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후반 들어 박성현이 11번 홀(파4)에서 먼저 버디를 성공시키며 고진영을 위협했지만 곧바로 파로 응

수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15번 홀(파4)에서도 1타를 더 즐이며 티샷을 즐이지 못한 박성현과 격차를 2타 차로 벌였다.

이어 승부의 분수령이 된 16번 홀(파4)에서 박성현과 전인지가 모두 보기를 한 반면, 고진영은 파로 마무리해 2개 홀을 남기고 3타 차로 벌려 우승을 위한 9부 능선을 넘겼다.

남은 홀을 파로 마무리한 고진영은 1타를 따라 붙는데 그친 박성현을 제치고 챔피언 퍼팅을 성공시켰다.

시즌 3번째 우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 등극까지 노렸던 박성현은 2위에 그치며 어렵게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시즌 첫 우승에 도전했던 전인지는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즐이며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위협 받았던 유소연(27·메디힐)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8위에 올라 '톱10'과 함께 랭킹 1위 자리를 한 주 더 사수할 수 있게 됐다.

고진영을 제외하고 국내외 선수들 가운데서는 최종일 3타를 즐인 김지현(26·한화)이 8언더파로 가장 높은 13위에 위치했다.

김민선(22·CI오소공)과 김지현(26·롯데), 최혜진(18·롯데)은 7언더파 공동 14위 그룹에 위치했다.

렉시 톰슨(미국)은 최종일 4타를 잃으며 함께 4언더파로 공동 26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하루 무려 3만1728명의 관중이 찾았다. 1~4라운드 합계 6만1996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5만6237명을 훌쩍 넘는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15일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의 귀국을 앞두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축사국) 회원 5명이 오전 8시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자리를 잡고 신 감독을 기다렸다. 이들은 '한국 축구 사망했다!'는 내용의 걸개를 걸고 대한축구협회(협회)의 각성과 김호곤 기술위원장의 사퇴를 외쳤다. 협회는 예정된 입국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 "지금 매 맞더라도 월드컵 보고 간다"

▶귀국길에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2연전 마치고 독일로 갔다가 러시아로 다시 와서 베이스캠프를 답사했다. 가볍게 들어오지는 못했다. 실망스러운 경기를 해서 맘 편히 오지 못했다. 불상사라고 해야 하나. 이런 사태(항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그런 분들도 축구를 사랑하는다는 느낌을 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코치 후보들을 직접 만났는데.

"여러 명을 만나 미팅을 하고, 친취적인 이야기도 했다. 나 또한 몇몇 분은 맘에 들어서 고민하고 있다. 기술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11월부터 합류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 베이스캠프는 여러 곳을 봤다.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눈으로 지켜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

▶팬들을 돌릴 수 있는 청사진이 있나.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내가 감독을 맡고 2연전에 나섰던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제대로 갖으면 실망이 아닌 더 좋은 경기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K리그가 살아야 대표팀이 산다. K리그가 없어지고 대표팀만 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K리그가 대표팀을 위해 희생을 해줘야 나도 위임을 안고 있었지만 협조했다. 이번 2연전에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전술적인 부분, 조직적으로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 경기력이 떨어진 선수들이 뛰다보니 내용과 조직력에서 불안했다. 잘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부터는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감독을 맡고 9월과 10월에 실망했다면 인정한다. 11월부터는 조금 더 진취적인 모습 월드컵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를 뽑아서 내년 6월에 잘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겠다."

▶기량을 끌어올릴 방안은.

"나는 공격을 상당히 좋아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월 평가전, 12월 동아시아컵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월드컵이 중요하다. 11월부터는 수비가 중심이 되고 팀에서 경기를 뛰는 선수를 뽑아서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월부터는 좀 더 팀에서 경기에 나오면서, 우리 팀에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겠다. 수비가 단단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못하는 팀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월드컵에 대비한 준비를 해

▶중국, 일본파가 많은 수비는 국내파 선수들의 깜짝 발탁도 고려중인가.

"다 생각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는 K리그 선수들도 더 많이 보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드컵에 나갈 기량이 부족한 선수를 뽑아 올리고 싶다. 경기 끝나고 코칭스태프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할 부분이 있다."

▶11월에는 어떤 상대를 원하나.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협회에서 팀을 데리고 올 때 계약 문제가 있기에 답변하기 어렵다. 우리보다 강하고 좋은 팀을 불러달라고만 요청했다."

▶외국인 코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코칭스태프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렵다. 내가 미리 언론에 이야기하면 계약이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조심스럽다."

▶만약 11월 A매치와 12월 동아시아컵에서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11월부터는 우리가 팀에 중심이 될 선수를 갖고 조직력을 최대한 만들겠다. 소집할 시간이 별로 없다. 큰 변화보다는 중심 선수를 데리고 추구할 축구를 펼치고 싶다. 내가 유럽에 가서 면접을 본 외국인 코치도 11월에 합류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하겠다. 수비가 단단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못하는 팀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월드컵에 대비한 준비를 해

'피겨 기대주' 유영·김예림, 주니어 GP 7차 대회 5·6위

남자 싱글 이시형, 176.16점 10위 그쳐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차세대 간판' 유영(13·과천중)과 김예림(14·도장중)이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나란히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5, 6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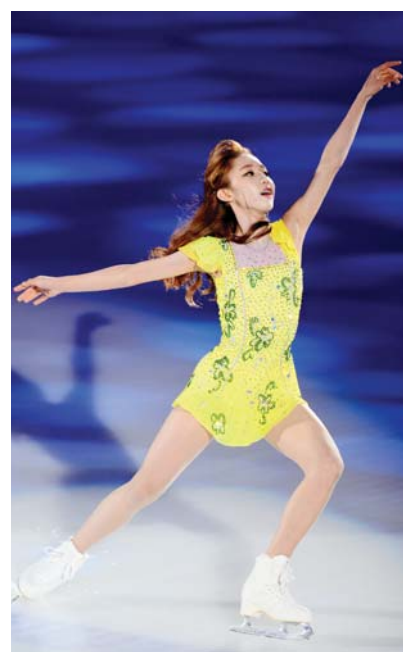
유영은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볼차노에서 끝난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7.28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60.42점)과 합해 총 177.70점을 받아 5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에서 5위였던 유영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3.61점, 예술점수(PCS) 54.67점에 각각 1점을 받아 순위를 지켰다.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데뷔한 유영은 데뷔전이었던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작성한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종전 163.42점)을 14.28점 끌어올렸다.

같은 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ISU 공인 프리스케이팅 최고점(종전 109.61점)보다도 7.67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



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살코, 트리플 투르프를 모두 깔끔하게 뛰며 기본종계 출발했다.

스텝시퀀스를 레벨3로 처리하며 연기를 이어간 유영은 트리플 플립에서 예지 사용에 주의하라는 어텐션 판정을 받았다.

유영은 레이백 스피ن을 레벨4로 연기한 뒤 트리플 러츠도 실수없이 뛰며 수평점수(GOE) 0.80점을 챙겼지만,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뒀 후 빙판 위에 넘어졌다. 연결 점프 회전수 부족 판정에 감점 1점까지 떠안았다.

유영은 흔들리지 않고 플라이닝 스피ن을 레벨3로 연기한 후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투르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뒀고,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ن으로 연기를 마쳤다.

김예림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115.42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52.22점)과 합해 총 167.64점을 얻어 6위에 자리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보다 4.57점 모자란 점수를 받아 9위에 그쳤던 김예림은 프

리스케이팅에서 TES 64.98점, PCS 50.44점을 받아 순위를 세 계단 끌어올렸다.

김예림은 지난해 8월 2016~2017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 작성한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종전 165.89점)도 1.75점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날 프리스케이팅 점수도 ISU 공인 프리스케이팅 개인 최고점(종전 113.55점)보다 1.87점 높았다.

김예림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소화해 GOE 1.20점을 따냈고, 트리플 투르프도 실수없이 뛰었다.

플라이닝 스피너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너를 각각 레벨4, 레벨3로 처리한 김예림은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살코를 실수없이 뛰며 안정적인 연기를 이어갔다.

스텝시퀀스에서 레벨2를 받는데 그쳤지만 트리플 러츠는 큰 실수없이 소화했다.

레이백 스피너를 레벨3로 연기한 김예림은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투르프 콤비네이션 점프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여자 싱글에서는 러시아의 소피 아 사오무로바가 192.19점을 얻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알레나 코스토르나야(러시아)가 192.15점을 기록, 0.04점 차로 2위에 올랐다.

일본의 기하라 리카가 185.81점으로 뒤를 이었다.

남자 싱글에 나선 이시형(17·관곡고)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21.99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54.17점)과 합해 총 176.16점을 얻어 전체 27명 가운데 10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에서 11위였던 이시형은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65.13점, PCS 56.86점을 받아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이시형은 올해 2월 4대륙선수권 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195.72점)에 19.55점이나 뒤처지는 점수를 받았다.

뉴시스



김민재, 무릎 수술 받는다...시즌아웃

프로축구 전북현대 수비수 김민재(21)가 무릎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사실상 이번 시즌을 접었다.

전북 관계자는 15일 "김민재가 오는 무릎 반월 연골판 이식을 오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시즌은 아웃이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약 1개월 정도 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는 올해 한국 축구가 발돋움 하는 시기를 맞았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이란), 10차전(우즈베키스탄)을 앞두고 신태용 감독의 부름을 받은 김민재는 신인임에도 영리한 플레이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 A매치 출전이었지만 안정적 모습을 보여 향후 대형 수비수로의 성장을 예고했다.

김민재의 수술은 최근 유럽 일정 평가전에서 심각한 수비 불안을 드러낸 신태용에게 약재다. 대표팀은 다음달 국내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